

장마의 정의와 어원

류상범

기상연구소 기후연구실

1. 서론

‘장마’란 무엇일까? 장마 기간은 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기상학자는 현재 아마 없을 것이다. 장마가 매년 반복되는 계절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 형태가 다르고 또한 매우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장마의 특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어느 날을 경계로 하여 장마권에 들고 벗어났음을 단정적으로 선언하기 어려운 해가 많다. 장마의 특성을 연구하는 기상학자마다 장마의 시작과 끝을 정의하는 방법이 현재 각각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상학자들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는 것’을 장마로 보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1995년에 기상청에서 발간한 *장마백서*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는 것이 기상학적 장마”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인들이 느끼는 장마는 기상학적 장마와 개념이 다르다. 국어연구원이 1999년에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장마는 “여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또는 그 비”로 정의되어 있다. 한글학회 역시 장마에 대한 국어사전적 정의를 장마에 대한 일반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허웅, 2000; 개인통신). 이와 같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장마, 기상학적으로 정의된 장마, 그리고 기상청에서 예보에 사용하는 장마의 개념이 서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다. 따라서 장마에 대한 개념 차이로 발생하는 일반인과 기상학자 사이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장마의 정의를 시급히 재조명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마에 대한 일반인과 기상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고, 장마의 어원을 조사하고자 한다.

2. 장마의 기상학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

‘장마’란 단어는 기상학 전문용어인 동시에 일반생활 용어이다. 장마와 같이 전문용어와 생활용어로 동시에 사용되는 단어들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우선 장마의 기상학적 정의를 *기상학 사전*과 *장마백서*를 통

해 살펴보았다. 김광식(1992)의 *기상학 사전*에는 장마란 “여름철 계속해서 많이 내리는 비”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기상청이 1995년에 편찬한 *장마백서*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 표현이 약간 다르다. 하지만 김광식의 *기상학사전*은 장마의 정의에 이어 장마의 발생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호츠크해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사이에 뚜렷한 전선이 생긴다...서쪽에서 뻗어 나온 북태평양고기압으로부터 불어 올라오는 남서기류와 상층의 북서기류 사이에도 수렴대가 형성된다...이 전선과 수렴대가 장마를 몰고 오기 때문에 보통 장마전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기상학자들은 장마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싶다.

국어사전을 통해 장마의 일반적 정의를 살펴보면, 국어연구원에서 최근에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장마는 “여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또는 그 비”라고 정의되어 있다. 최초의 우리말 사전에 해당되는 한글학회의 *큰사전*(1957)에는 장마를 “잇대어 매우 많이 오는 비”라고 정의하였다. *큰사전*은 조선어사전편찬회가 1929년에 편찬을 시작하여 1957년에 을유문화사에서 간행되었다. 그 외 다른 국어 대사전에도 시대와 관계없이 장마가 “오래 두고 오는 비”(청수사의 *우리말 사전*, 1953; 신기철과 신용철의 *표준국어사전*, 1958; 국어국문학회의 *국어새사전*, 1958), “계속해서 많이 오는 비”(이회승 편저 *국어대사전*, 1994년 개정판)로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장마의 정의는 ‘계절에 관계없이’, ‘장마전선 유무와 관계없이’ 오래 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한다.

3. 장마의 어원

장마는 한글일까 한자어일까? 그리고 언제부터 장마란 단어를 사용했을까? 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장마의 어원을 ‘당(長) + 땅’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千字文, 訓蒙字會와 더불어 한문교습에 사용되었던 *新增類合* 2卷 1冊 (선조 9년

(1576)에 간행)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영조 24년(1748)에 간행된 만주어의 사전류인 同文類解까지 ‘당마 霖’, ‘당마디다 下霖雨’로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장마와 비슷한 ‘장마’가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영조말년 이후 간행된 문헌부터이다. 숙종 16년(1690)에 간행된 일종의 번역서인 譯語類解의 단점을 보완하여 김홍철이 편찬한 譯語類解補(영조 51년(1775)에 간행)1卷과 만주어를 구분하여 거기에 한문과 한글로 뜻을 쓰고 만주어음을 한글로 표기한 만주어사전인 漢清文鑑(영조말년경 간행)에 ‘장마스비 霖雨’로 기록되어 있다. 그 후 고종 17년(1880)에 간행한 도고에 대한 해설을 한글로 적은 敬信錄諺解 78章에 ‘가물과 장마’라는 표현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당(長) + 망’을 장마의 어원으로 보면, 장마는 ‘긴’, ‘오랜’이란 뜻의 한자어 長과 ‘마ㅎ’의 합성어이다. 그럼 ‘마ㅎ’는 무슨 뜻일까? 우리말의 어원을 설명하는 우리말의 뿌리(안옥규, 1994)와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백문식, 1998)에 ‘마ㅎ’는 물(水)의 옛말로 ‘말장다’, ‘맑다’라고 할 때의 ‘말’의 옛 형태인 ‘마라’의 준말로 설명되어 있다. 즉 ‘마’는 물의 옛 형태인 ‘무르’와 형태변종이다. 三國史記에서는 買(mai)로 표기했다(백문식, 1998). 의미 관계로 볼 때 ‘마ㅎ’의 변이음이 ‘비(雨)’ 가능성이 크다. 고려 숙종때 서장관으로 개성에 왔다가 당시 고려인들이 사용하던 언어 353개를 추려 설명한 중국 송나라 사람 손목의 鷄林類事에 ‘비’를 雨曰霏微라 하여 오늘날의 발음 ‘비’와 일치한다. 윤선도의 시문집으로 1798년에 간행된 孤山遺稿에는 장마를 ‘마ㅎ’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장마는 순한글도 한자어도 아닌 한글과 한자 합성어이며, 그리고 장마를 의미하는 한자 霖이 선조 9년(1576)에 간행된 한자교습서 新增類合에는 “霖 당마 립”이라 풀이되어 있지만, 그보다 일찍 간행된 한자교습서 訓蒙字會(중종 22년, 1527)에는 “霖 오란비 립”으로 풀이되어 있는 점에 미루어 장마의 어원인 ‘당마’의 옛말은 ‘오란비’라고 추정된다. 백문식(1998)의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에도 장마의 순수고유어는 ‘오란비’라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날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1500년대 이전에는 ‘오란비’로 표현하다가 1500년대 중반부터 ‘오랜’의 한자어인 ‘長’과 ‘비’를 의미하는 ‘마ㅎ’를 합성한 ‘당마ㅎ’로 표현되다가 ‘장마’, ‘장마’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4. 장마와 梅雨

동아시아 여름철 우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장마, 일본에서는 梅雨(Baiu), 중국에서는 梅雨(Mei-yu)라고 한다. 중국과 일본에서 동아시아 여름철 우기를 ‘梅雨’라는 같은 한자를 통해 표현하는데 비해, 중국과 일본 가운데 위치한 우리나라에서만 ‘장마’라는 다른 표현을 홀로 사용하고 있다. 한문을 주로 사용하던 조선시대에도 梅雨 대신, 梅雨와 발음이 유사한 霖雨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田村專之助, 1983; 전영신, 2000; 박정규 등 2001).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1997)의 조선왕조실록 국역 CD-ROM을 이용하여 ‘장마’라고 번역되어 있는 용어를 검색한 박정규 등(2001)에 의하면 ‘장마’라고 번역되어 있는 용어가 포함된 문장은 총 926건으로 상당히 많다. 이 들 문장 가운데 ‘흠비가 온다’는 霖를 사용한 霖雨가 가장 많았고, 陰雨, 霪雨, 淫雨, 霖雨, 恒雨 등이 사용되었다. 제 2장에 언급한 6종류의 사전에 수록된 단어 가운데 ‘장마’로 설명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된 단어보다 종류가 훨씬 다양하다; 長霖, 積雨, 梅雨, 黃梅雨, 長雨, 久雨.

梅雨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을까? 梅雨는 중국에서 유래된 말로, 양자강 유역에 매실이 익을 때 내리는 비라고 해서 梅雨라 하였다. 또 옛날 중국에서는 동아시아 여름철 우기동안 축축해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하여 霉雨라 하였다는 설도 있다. 박정규 등(2001)이 분석한 조선왕조실록에는 梅雨란 단어가 단 한번밖에 나타나지 않고, 이 역시 세종 4년 11월 16일(태음력)에 일본 국왕이 대장경을 청하는 서신을 옮긴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바닷길이 멀어 오래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이 때 梅雨는 개고 …”. 세종 때 쓰여진 일본국왕의 서신에 梅雨가 사용되었지만, 이 시대 일본에서는 이 비를 五月雨라고 하다가 선조 이후인 에도(江戶)시대부터 梅雨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梅雨를 露(쓰유)라고도 한다(문승의, 1999; 개인통신).

본 연구에서 한문으로 작성된 고문헌들을 모두 조사하지 못하고 단지 박정규 등(2001)이 조사한 조선왕조실록 국역 CD-ROM에 장마로 번역된 용어를 검색한 결과를 인용하였기에, 현 시점에서 梅雨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제 2장에서 언급한 6종류의 국어사전 모두 梅雨라는 단어를 수록하고 있으며 일부 소설에도 표현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최인훈의 소설 회색인에 “사과꽃이 피기 전 梅雨의 계절에…” 표현이 있다.

여기서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의문이 있다. 가장 최근에 간행된 *표준국어대사전*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류에 장마가 계절에 관계없이 ‘오래 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로 설명되어 있는데 비해, 같은 사전에서 梅雨는 ‘유월상순부터 칠월 상순에 걸쳐 계속되는 장마’로 설명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梅雨를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장마’란 단어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어떤 시기에 내리든’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현상을 말하며, 서론과 제 2장에서 제기했던 일반적 의미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비해 ‘유월 상순과 칠월 상순에 걸쳐 계속되는 장마’라는 梅雨의 설명은 기상학적 장마로 간주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5. 결론 및 제언

어떤 한 단어가 전문용어와 생활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될 때, 보통의 경우에는 두 용어가 뜻하는 보편적 의미가 같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룬 ‘장마’와 같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단어의 보편적 의미가 달라질 때에는 문제가 된다. 특히 ‘장마’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단어는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언어학자가 아닌 기상학자로서 ‘장마’의 정의와 어원을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장마’라는 단어가 주는 혼란에 대해서 기상학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언어학자와 공동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가 앞으로 문제해결에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조사한 것을 정리하였다. 장마의 어원은 ‘오랜’의 한자어인 ‘長’과 ‘비’를 의미하는 ‘마’를 합성한 ‘당마’이며, 1500년대 중반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후 ‘당마’는 1700년대 후반 ‘장마’로 표기되다가 일제 강점기 이후 ‘장마’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1500년대 이전에는 ‘여러 날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오란비’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계속 조사해야 할 의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 기상학계에서 동아시아 여름철 우기를 梅雨라 표현하지 않고 ‘장마’로 표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 2) 기상학에서 ‘장마’를 정의하면서 ‘장마전선’이라는 잣대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 3) 1905년 일본인 기상학자 오카다에 의해 처음 제기된 동아시아 지역의 정체전선이 중국과 일

본 기상학계에서는 梅雨前線이라고 부르는데 (문승의, 1999; 개인통신) 반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장마전선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위의 의문들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70년대 이전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기상학 관련 문헌들을 엄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마에 대한 개념 차이로 발생하는 일반인과 기상학자 사이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장마의 정의를 재조명해야 한다. 국어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장마를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로 이해하는 일반인에게 ‘마른 장마’, ‘장마후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학적 설명은 상식에 대한 혼란일 것이다. 그러나, 기후학적으로 매년 장마철 동안의 강수량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은 매우 드물다. 또한 기후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해, 오늘날 동아시아 여름철 우기의 특성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한 예로서, 60년대와 최근 30년 장마기간 동안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장마철 동안 비가 온 날의 비율이 60년대 62%에서 최근 30년 동안 56%로 줄었으며 장마기 동안의 평균 일강수량도 17.9mm에서 12.3mm로 줄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장마와 장마기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중점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인 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 중 기후시스템 물리과정 상호작용 연구(과제번호: 00-J-CG-01-B-20)로 수행된 것이다.

참고문헌

- 박정규, 황재돈, 전영신, 2001: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장마, 한국기상학회지, 심사중.
- 백문식, 1998: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삼광출판사
- 안옥규, 1994: *우리말의 뿌리*, 학민사
- 전영신, 2000: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황사 현상, 한국기상학회지, 36(1), 285-292.
- 田村專之助, 1983: *李朝鮮氣象學研究*, 399pp.



Fig. 1. The "Sin-Jung-Ryu-Hap" published at 1576. It included the Korean transfer of Chinese character with meaning of Changma.



Fig. 2. The "Hun-Mong-Ja-Hai" published at 1527. It included different Korean transfer of the same Chinese character with meaning of Changma from "Sin-Jung-Ryu-Hap"